

개화기 유학자와 계몽운동가들의 서양철학 수용

이현구(성균관대학교 강사)

I. 연구 주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서양철학 수용의 前史에 대해 연구하는 주제 중에서 유학자들과 계몽운동가들의 경우를 중심으로 다룬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학자’ ‘계몽운동가’의 서양철학에 대한 연구는, 이들이 서양철학에 대한 저술이나 기록을 남겼지만, 그것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작업이라기 보다 시대상황과 연관된 우연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서양철학 수용의 前史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서양철학에 대한 비체계적이고 비전문적인 작업이라 하더라도 ‘서양철학수용사’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들 작업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이들 작업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주제와 연관된 저술과 기록을 수집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그것을 기초로 개항기 이후 일제초기 사이에 활동한 유학자와 계몽운동가들의 서양철학 이해 과정과 내용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철학의 발생 근원이 인간의 삶이라고 한다면, 동서양의 철학이 공통부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하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西學이 소개되었을 때 실학자들이 보인 반응도, 동서양에서 철학적 문제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된다. 실학자들은 교리의 전달을 위하여 쓰여진 책 안에서 世界觀 또는 哲學에 관련된 내용과 自然科學에 관련된 내용을 구분하였던 것이다. 또한 신학적 내용에 대한 자기 관점에서의 비판을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분이 자기들의 전문 분야와 같은 주제를 다룬다는 것을 쉽게 가려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어느 시기 思考의 轉換을 전적으로 외부 영향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

가 있다. 동양에는 전혀 없던 문제에 대한 생각이 서구에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다른 주제에 대하여 실학자들은 다르게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학자들이 서양 중세신학의 세계관을 비판한 것은 그 주제가 가장 근원적인 철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감지력에 힘입었으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서양 신학의 논리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를 근거로 한 평면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논문에서 다루는 개화기의 유학자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유학자들이 서양 ‘철학’이라는 것을 감지한 것은 무척 빠르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이 이 주제의 특수한 성격으로 이미 전제된다.

17, 8세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주교서적은 적어도 64종이 넘었다.¹⁾ 이 자료들이 몇 차례의 西學書 소각령으로 불태워져 아직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작업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말로 옮겨진 것도 14종이나 되었다.²⁾ 그것은 하층민까지 광범위하게 포교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으므로, 주로 신학적인 내용이 중심일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철학자들의 눈에는 그 속에서 자기들과 다른 세계관을 발견하고 비판할 수 있었다. 더구나 조선에 전래된 64종 가운데 『斐錄彙答』(2권)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철학 문제를 다룬 책이다.³⁾ 그렇다면 유학자들이 서양 철학의 내용을 만날 수 있었던 가능성은 개화기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17, 8세기에 서학서를 통하여 실학자들이 서양철학을 이해한 입장과 개화기 유학자들의 입장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도 이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1) 裴賢淑, 17·8世紀에 傳來된 天主敎書籍. 교회사연구 제3집, 1981.

2) 위의 논문.

3) 張維華, 『明清之際中西關係簡史』, 齊魯書社, 1987. p.257.

II. 연구 범위와 대상

이 연구는 협동연구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유학자’의 범위는 주로 개항기 이후 일제 초기에 걸쳐 활동한 사람들로서, 관심을 가지고 서양철학을 연구한 사람이나 서양철학에 연관있는 저술, 기록을 남긴 사람들로 한정한다. ‘계몽운동가’의 경우도 개신교를 통한 유입 과정을 연구하는 별도의 기획이 있기 때문에 주로 유교 전통의 기반을 가진 계몽운동가들에 한정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연구대상의 후보로 예상되는 ‘유학자’의 범위는 매우 넓어진다. 왜냐하면 ‘유학’의 개념은 외연이 넓고, 스스로 ‘유학자’로 생각한 사람들까지 고려한다면 시기적으로 최근까지의 인물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국과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의 단절’ 현상 때문에 이 시기 유학자들에 대한 기초 조사와 정리는 개척 중에 있는 분야라고 보아야 하는 형편이다. 즉, 이 시기의 유학자들에 대한 개인 전기와 저술 목록, 저술의 출판 등 연구의 기초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지지는 못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기초 조사 부문에서 더욱 범위를 넓혀 조직적인 조사 작업을 한다면 자료의 범위는 훨씬 넓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또 하나의 방대한 연구 분야이기에, 이 논문은 기초 조사에서 보완의 여지를 많이 남겨둔 채로,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내용면에서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 치중한다.⁴⁾

계몽운동가들의 경우도 유교적 전통과 연관이 적고 개신교나 서양 사조에 연관이 깊은 인물들은 다른 연구에 넘긴다. 시기적으로 개화파가 해당되지만 유교적 전통과의 연관성을 낮게 보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애국계몽운동기에 활약한 張志淵(1864-1920)과 朴殷植(1859-1925)을 연구 대상에 넣게 되었다.

4) 琴章泰, 『儒學近百年』(박영사, 1984)과 『續 儒學近百年』(여강출판사, 1989)은 목적이 다르지만 이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도움이 되었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유학자와 계몽운동가들이 서양철학에 관하여 남긴 기록들은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을 통하여 전해진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의 서양철학 수용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하여도 별도의 연구가 있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언급할 것이다.

III. 서양철학 수용 과정과 내용

1. 石亭 李定稷의 「倍根學說」과 「康氏哲學說大略」

李定稷(1841-1910)은 師承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조선말의 유학자이다. 그러나 당시 전라도에서는 海鶴 李沂, 梅泉 黃玹(1855-1910)과 함께 ‘湖南三傑’로 일컬어질 정도였다 한다.⁵⁾ 「李定稷의 칸트 研究」(朴鍾鴻)를 통하여 학계에 알려졌고, 그것은 베이컨과 칸트철학에 관련된 기록이 있었던 까닭이었다.

이정직의 「倍根學說」은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03년에 간행된 양계초의 『음빙실문집』 가운데 ‘학설’편에 있는 「근대문명의 시조 베이컨, 데카르트의 학설(近代文明初祖 倍根, 笛卡兒之學說)」 가운데 「倍根 實驗派之學說(亦名 格物派)」을 보고 뜻이 중복되거나 긴 말을 7군데 삭제하면서(다만 두 군데 첨가한 부분이 있다) 양계초의 글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⁶⁾ 양계초의 설명은 베이컨의 실험설과 우상론을 소개하고 朱熹(1230-1300)의 格物說과 대비하여 서로 통한다고 밝히면서도, 주희는 간략하고 베이컨은 자세하며, 베이컨은 자기 이론을 실천하였지만, 주희는 격물설을 내기는 했어도 실제는 性理를 공담하였다고 평

5) 吳鍾逸, 實學思想의 近代的 轉移 — 石亭 李定稷의 경우 — 韓國學報 35. 1984.6.

6) 吳鍾逸, 위의 논문.

가하였다.⁷⁾ 양계초는 베이컨 학설의 특징을 정리하였는데, 이 내용들은 근대철학의 쟁점들을 잘 드러내는 것이었다. 양계초는 “베이컨은 추측을 가장 싫어했던 학자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格物學이란 제현상의 법칙(定理)을 찾는 데 있을 뿐이다. 그 현상의 근원 같은 것은 만물의 원리에 관한 학문에 소속되니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만물의 원리에 관한 학문은 신(造化主)과 영혼의 有無나 신이 인류의 육신과 영혼에 대하여 맺는 관계를 연구하므로, 너무 추상적이어서 믿을만한 증거가 없고,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 보탬이 없으니, 내버려 두는 것이 옳다.’고 한다. 베이컨은 개별 사물의 법칙을 중시하고 이론적 원리를 경시하였다. 이것이 칸트나 스펜서 같은 학자에 못미치는 점이다. 그러나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시작하는 자는 힘들고 어렵다. 베이컨이 없었다면 뒤에 칸트나 스펜서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⁸⁾라고 하였다. 이 정직은 이와 관련하여 베이컨의 시험, 관찰의 방법을 도입하여 동서철학을 절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정직의 칸트철학에 대한 기록도 베이컨의 경우와 같은 입장이다. 칸트의 윤리학과 『실천이성비판』에 주목하고, 자유와 인간존엄 사상에 공감하였다. 이는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에 기록된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 양계초는 일본 철학관에서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칸트를 네 성인(四聖)으로 받드는 내용을 먼저 소개하면서 칸트를 19세기 학술사의 제일인자로 소개하였는데, 이는 일본 철학계의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양계초는 “근세사의 시초부터 學界는 찬란한 빛을 내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유럽에서 우뚝한 위치를 차지한 학파는 둘이었다. 하나는 영국파로서 베이컨이 열었고, 실증(實驗)을 중시하여 과학의 방법으로 철학 원리를 말하였다. 흉스와 로크가 뒤를 이었고, 흄이 종합(集大成)하였다. 다른 하나는 대륙파로서, 데카르트가 열었고, 추리를 중시하여 物心二元論을 내놓았다.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 볼프가 뒤를 이었다. 이 두 학파는 유럽 사상계를 양분하여 제각기 발달하면서 서로 조화하지 못했다.

7) 양계초, 음빙실전집. 臺北 文化圖書公司, 1970. pp.142-145.

8) 양계초, 위의 책. p.144.

18세기 초는 유럽 학계가 얹히고 섞혀서 논쟁하던 시대였다. 이 때에 칸트가 나와서 종합(集大成)하였다.”⁹⁾고 하여, 칸트가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한 사실을 요령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직의 칸트철학에 대한 소개에는 양계초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즉 “梁啓超가 칸트의 哲學을 佛教의 華嚴思想과 연결지어 설명한 데 비해 李定稷은 儒學思想을 연결지어 說明한 것이 獨自性을 인정할 만하다.”¹⁰⁾는 지적이다. 이정직이 칸트 철학과 유학을 연관지어 설명한 것은 칸트의 自由思想에 대하여 “天理의 自然에 따르는 것이 진짜 自由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本質의 世界로서 儒學에서 말하는 本然之性이라 하였다.”¹¹⁾ 라든가 “칸트가 ‘사람을 목적으로 對해야지 手段으로 對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石亭은 칸트가 인간의 존엄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 하고, 仁이란 그런 경지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¹²⁾는 대목 등이다.

이정직이 원저자 양계초보다 유학과의 비교에 관심을 갖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계초의 저작 목적이 ‘계몽’ 쪽에 있었다면, 이정직은 유학의 입장을 지키면서 절충, 수용하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양계초는 칸트의 철학을 소개하면서도 人權이나 主權에 대한 근대적 사고의 내용을 소개하려는 데 중점이 있었다. 또한 칸트의 인식론을 주로 불교 이론과 대비시킨 것이나 칸트의 自由 개념을 양명학의 ‘良知’ 개념과 대비시킨 것은 양계초의 독창적인 생각이기 보다 일본철학계의 서양 철학 수용 입장과 연관이 예상된다.¹³⁾

石亭 李定稷의 「倍根學說」과 「康氏哲學說大略」은 그의 나머지 저술과 비교할 때, 매우 동떨어진 성격의 자료로 평가된다.¹⁴⁾ 양계초의 『음빙실문집』 자료에 근거하여 초록하고, 논평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료 성립 시

9) 양계초, 앞의 책. p.195.

10) 李定稷의 「칸트」研究. 朴鍾鴻全集 5, P.257

11) 앞의 논문.

12) 앞의 논문.

13) 李威周, 『中日哲學思想交流與比較』. 青島海洋大學出版社, 1991. PP.209-212.

14) 吳鍾逸, 앞의 논문.

기도 1903년 뒤가 되어 역사적 의미가 적어진다.¹⁵⁾ 이미 이 시기에는 서양학술에 관한 내용이 적지 않게 소개되기 때문이다. 이정직의 서양철학에 대한 의도적인 관심을 증명할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의 「倍根學說」과 「康氏哲學說大略」은 아주 제한된 의미를 가질 뿐이다.

2. 省窩 李寅宰의 『希臘古代哲學攷辨』

李寅宰(1870-1929)는 寒洲學派 계열의 면우 郭鍾錫(1846-1919)에게 배웠다. 그는 『哲學要領』 『論綱』 『希臘三大哲學家學說』 등 서양철학을 소개한 서적을 읽고 『회립고대철학고변』을 지었다.¹⁶⁾ 이인재가 참고한 책에 대하여 일본의 井上圓了 著, 중국 羅伯雅 譯으로 된 『哲學要領』과 프랑스의 李奇若(원명 미상) 著, 중국 陳鵬 譯으로 된 『哲學論綱』, 그리고 중국 양계초의 『飲冰室文集』 등의 연구가 있다.¹⁷⁾ 『李炳憲全集』의 「儒教爲宗教哲學集中論」에서는, 일본학자 나카시마(中島力造)가 지은 『西洋上古哲學史論』과 南海陳鵬이 번역한 『希臘三大哲學說』. 이노우에(井上圓了)가 지은 『哲學要領』 등을 소개하고 있다.¹⁸⁾ 이 책들은 『회립고

15) 뒤에 서술할 李炳憲의 경우 이보다 훨씬 전의 서양철학에 관한 자료를 읽은 흔적이 있다. 그것은 대개 서양에 유학했거나 원서를 읽었던 일본 학자들의 저술이다.(아세아문화사, 『李炳憲全集』「解題」 참조.)

16) 李寅宰, 『省窩集』. 아세아문화사, 1978. p.266에 ‘哲學要領’ p.271에 ‘論綱’ p.276에 ‘希臘三大哲學家學說’로 引用書名을 밝히고, 다른 곳에서는 ‘要領’ ‘學說’로 줄여서 표기하여 일일이 인용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17) 朴鍾鴻, 『韓國思想史論攷』. 瑞文堂, 1986. p.395. 이인재가 참고한 책들의 著者와 漢譯者에 대해 『朴鍾鴻全集』 V.5(p.446)에서 고증한 내용은 해당 서적의 내용을 직접 검토하는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金鍾錫, 李寅宰의 사상과 역사적 의의 : 서양철학 전래 초기 유학계의 동향에 관한 일 고찰. 영남대, 『哲學會誌』 제17집.)

18) 『李炳憲全集』, 아세아문화사, 1989. pp.209-211. 「儒教爲宗教哲學集中論」이란 제목 아래 이병현이 요약하여 정리한 내용에서, 일본학자 나카시마(中島力造)가 지은 『西洋上古哲學史論』과 南海陳鵬이 번역한 『希臘三大哲學說』. 이노우에(井上圓了)가 지은 『哲學要領』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 평범사 『철학사전』

『대철학고변』을 지을 때 참고한 책 제목과 같아서 바로 이인재가 참고한 책들이라고 본다.

中島力造나 井上圓了 등은 일본 명치시대에 서구 근대철학과 일본 전통을 융합하려고 한 대표적 학자로서, 井上圓了는 불교철학에 기초하여 서구 근대철학을 받아들이려 하였고, 오스트랄트의 ‘에너지론’을 불교철학으로 해석했던 사람이다.¹⁹⁾ 그러므로 실학자들이 중국에 온 선교사들이 번역한 책들을 통하여 서양 사정이나 학술을 이해하던 것과는 달리, 이 시기에는 일본인 학자들 중에 직접 서양에 유학한 사람들이 저술한 책을 조선의 학자들이 이용하게 되었다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인재는 『希臘古代哲學攷辨』뿐 아니라, 서양 정치사를 다룬 『泰西新編』이란 책도 지었다고 한다.²⁰⁾ 『태서신편』은 볼 수 없지만, 그의 文集 안에 있는 「漫錄」에서 “이 때를 당하여 위로는 우리 임금 우리 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卿士 서민에 이르기까지 눈을 빛내며 가슴을 열고, 열심으로 노력하여, 한결같이 國恥를 생각하고 한결같이 變通을 힘써 군신의 마음이 굳건해지고, 백성의 힘이 모이면 나라의 근본이 서고, 명령을 전하는 관직이 갖추어지고 新學이 일정하게 자리잡히면 백성들의 지혜가 개화할 것이니, 이렇게 노력하여 죽음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면 비스마르크의 정치가 오직 유럽에서만 아름답지 않고, 워싱턴의 독립이 동아시아에서 다시 나타날 것이니 教化는 달리 논할 일이다. 이것이 保國의 길이 되는 까닭이다.”²¹⁾고 하고 있어, 이미 개화사상가들이 읽었던 자료를 본 흔적이 뚜렷하다. 정관용의 『易言』(1875)이나 양계초의 저술들, 우리나라

(1980)에 의하면 井上圓了(1858-1919)는 1885년에 東大 哲學科를 졸업하고, 1886-7에 『철학요령』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이병헌의 필사에서는 井上圓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了’자를 필사과정에서 ‘丁’으로 잘못 적은 것이겠다. 또 中島力造(1858-1918)는 미국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1890년에 돌아와 東大 강사를 거쳐 교수가 되었고, 가토오(加藤弘之)의 진화론 철학을 비판한 인물로 소개되어 있다.

19) 李威周, 앞의 책. 같은 곳.

20) 李寅宰, 『省窩集』 권6 「墓碣銘」. 아세아문화사, 1978. pp.531-532.

21) 李寅宰, 『省窩集』 권5 「漫錄」. 아세아문화사, 1978. p.419

라 개화사상가들의 글에서 비스마르크나 워싱턴의 예를 인용하는 것은 하나의 공식이기 때문이다. 이인재의 서양 학술이나 신학문에 관한 관심은 당시 普成學校 교과서 구독을 권하는 적극성에서도 나타난다.²²⁾

이인재의 스승 곽종석이 쓴 「書哲學攷辨後」의 말로 추정하면, 『희랍고 대철학고변』은 1912년 이전에 쓰여졌다.²³⁾ 곽종석은 이 글에서 “과학은 철학에서 갈려나간 것이며, 철학은 본래 功利의 私心을 가지고 있던 것 이 아니라, 단지 물질 세계의 변화를 아는 것만을 진리로 여긴 것이므로, 그릇된 견해를 제거하고 깨우칠 수 있는 방법”²⁴⁾이라고 서양철학을 이해 하였다. 이 책의 서양철학에 대한 서술 입장은 대목으로 “철학은 과학의 원조요 희랍은 유럽의 스승이니, 그 조상을 방문하는 것은 그 자손을 방문하는 것이요, 그 스승을 경책하는 것은 그 제자를 경책하는 것이다.”²⁵⁾는 말이 있다. 또 “탈레스로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 텔레스로 전해지면서 연구가 더욱 깊어지고 정밀해진 것이 오로지 정신 지각(神知)의 한 부분이고, 仁義 德性과 보편적 道理에 대해서는 세밀히 살피고 돌이켜 보려 하지 않았다.”²⁶⁾고 하여 유교 전통의 우위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이러한 논조는 본문 안에 들어있는 이인재의 ‘논평(辨)’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보면 곽종석도 이인재의 연구 내용을 거의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근세에 프랑스의 데카르트, 영국의 베이컨이 거듭 철학의 전통을 궁리하여 백성들의 정신을 일깨워서”²⁷⁾ 라고 한 것을 보면, 근세 철학에 대한 소식도 이미 듣고 있었다.²⁸⁾ 면우의

22) 宋贊植, 『省窩集』 해제. 아세아문화사, 1978.

23) 위의 자료.

24) 李寅宰, 『省窩集』 권4 「書哲學攷辨後」. 아세아문화사, 1978. pp.387

25) 위의 책.

26) 위의 책.

27) 위의 책.

28) 이것은 『희랍고대철학고변』 안의 「철학사론」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책의 플라톤 설명부분 주석에는 근대 철학자인 로크의 지각론이 들어있다.(이인재, 앞의 책, p.290) 또한 양계초의 저술이 1900년대 초에는 국내에 전해졌고, 그 안에서 근대 철학자와 사회사상가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자들은 이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문학에서 교유가 있었던 제자들 사이에 이인재의 작업에 대한 소식은 돌았을 것이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서양철학 이해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자료를 분석했던 이인재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사람들 사이에는 입장 차이도 있었을 것이다.²⁹⁾

그러나, 이 책의 저술 과정에 대하여 이인재는 “新書라고 멀리 하지 않고 책을 읽는다고 하였으니, 진정한 舊學으로는 자못 웃음거리겠으나 서양의 부흥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근원을 알려면 정치를 연구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헌법, 행정 등에 관한 서적을 대강 들여다보니, 그 원류가 모두 철학에서 나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치 연구를 중단하고 먼저 철학을 따져 보았지만 재주가 둔하고 머리가 느려서 그 줄거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³⁰⁾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서양철학에 대한 어느 정도 의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 자세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인재의 서양철학에 대한 관심은 그 시기의 유학자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서구 문물에 대하여 개방된 자세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철학자는 순서대로 탈레스(廷禮), 아낙시만드로스(亞那機曼的), 아낙시메네스(亞那機蔑尼), 아낙사고拉斯(亞那機沙哥拉), 피타고拉斯(畢達哥拉), 크세노파네스(質諾非尼), 파르메니데스(扒蔑尼的), 제논(質諾), 로이키포스(柳西扒斯), 익라리他, 소크라테스(瑣格拉底), 플라톤(柏來圖), 아리스토텔레스(亞里斯多德), 스토아 제논(士多亞質諾) 순서이고, 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부분이 전체의 80% 분량이다. 개별 철학자의 소개 뒤에 「史論」「哲學史論」「哲學定義」가 짤막하게 붙어 있고, 맨 뒤에 광종석이 쓴 「書哲學攷辨後」이 들어 있다.

각 철학자들의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고 「辨」을 붙여 논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주장이 유학의 어떤 주장과 유사하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³¹⁾ 이인재는 특별히 “(정치사상보다) 철학

29) 李壽安, 『梅堂集』, 권3, 35장 「讀先師哲學攷辨後書」에서는 서양철학에 대한 관심과는 정반대로 유교의 ‘五倫’을 강화하자는 논리가 선명하다.

30) 李寅宰, 『省窩集』, 권2 「上倪宇先生」, 아세아문화사, 1978. pp.161-162

은 우리 道(유교)와 서로 가깝고,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씨의 학설은 서로 맞는 곳이 더욱 많습니다. 하늘이 중국에서만 인재를 내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서양이라고 하여 버리겠습니까?”³²⁾라고 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하여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인재의 논평(辨)은 대개 유학의 장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평가의 기준은 체계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편집의 세부 형식에서도 원저의 주장에 대한 요약문을 한 글자 낮추고, 논평(辨) 부분을 한 글자 높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서양 사상에 관한 정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유입 경로가 다양하게 되는 시기 이전에, 전통철학의 입장에서 서양철학을 논평한 내용은 특수한 부분에서 참고할 의미가 있다. 즉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특성과 공통점을 찾는 논의에서 이 시기의 논평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는 「辨」에 나타나는 비판의 논리 가운데 특별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논평의 형식에서 유가 철학 변천 과정에서 이단을 비판했던 전형적 논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항목의 논평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神은 모두 精氣가 갖추고 있는 지혜를 가리킨 것이니, (小註 : 그가 말하는 지혜의 근원은 一大智慧의 神으로, 신의 덕은 한량 없어, 만물을 만들고, 때로는 현자를 통하여 과거를 알고 미래를 말한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신의 본체가 언제나 生滅이 없다는 것은 道家에서 말하는 元氣不死와 흡사하다.”³³⁾고 한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正義와 敬信은 告子가 ‘義外’를 주장하여, 義信의 작용은 비록 사람 대하는 도와 神을 대하는 도가 달리 있으나 그 본체의 性은 모두 내 자신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한 것과 같다.”³⁴⁾한 것이나, 소크라테스의 ‘덕행’에 대한 주장을 노자의 ‘以德報怨’과 같은 논리로 보

31) 이인재가 각 철학자의 주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는 박종홍, 앞의 책. pp.396-400에 대략 소개되어 있다.

32) 앞의 책. p.162

33) 李寅宰, 앞의 책. p.278

34) 李寅宰, 앞의 책. p.278

고 공자의 ‘以直報怨’ 논리에서 논평하는 것³⁵⁾ 등과 같다.

또한 理氣論爭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이 논평 속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예를 들면, 타LES 항목에서 “理를 몰랐기 때문에 氣를 理라고 여겼다.”³⁶⁾고 한 것이나,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하여 “참으로 일체를 제거하려 한다면 이데아(理想)도 마른 나무처럼 아무 작용도 못하고 치우쳐 만물과 분리되니, 活物이 아니다.”³⁷⁾고 한 것 등이다.

소크라테스 철학에서 ‘神’ 개념을 理氣哲學의 관점에서 ‘天理’로 대비시켜, “소크라테스의 神은 天理의 妙를 가리키지 않고, 따로 하나의 위대하고 위엄있는 덕을 가진 신으로 본 듯하다.”³⁸⁾고 논평하면서, “神은 氣 가운데 신령한 것이며, 신령한 까닭은 天理自然의 妙이기 때문”³⁹⁾이라고 하였다. 또한 “神은 氣의 靈妙함을 가리킨다.”⁴⁰⁾라고 하고, 또 “神은 단지 理일 뿐이다.”⁴¹⁾라고 하였다. 서양의 ‘神’ 개념을 문제 삼으면서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인재의 ‘神’에 대한 개념 규정은 ‘理’ ‘氣의 영묘함’ ‘천리자연의 妙’ 등으로 표현이 다른데, 성리학의 체계에서 볼 때, 이 명제들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플라톤 철학에 대한 논평에서는 이원론에 대한 비판이 중심을 이룬다. 플라톤의 이데아가 ‘心外實有’라고 규정하고, “사람과 만물의 근원이 되는 理는 사람과 만물이 갖추고 있는 理이니, 개별물에 갖추어진 理가 개별물을 있게 한 理와 분리되어 두 神靈한 物이 되는 것이 아니다.”⁴²⁾고 비판한다. “理는 공중에 매달려서 사람과 만물을 낳는 것이 아니다.”⁴³⁾라는 성리학적 입장에서 “이른바 實相이 諸性을 초월하여 스스로 완전하

35) 李寅宰, 앞의 책. p.281

36) 李寅宰, 앞의 책. p.266

37) 李寅宰, 앞의 책. p.291

38) 李寅宰, 앞의 책. p.284

39) 李寅宰, 앞의 책. p.287

40) 李寅宰, 앞의 책. p.266

41) 李寅宰, 앞의 책. p.286

42) 李寅宰, 앞의 책. p.294

43) 李寅宰, 앞의 책. p.296

게 갖춘 순수한 性이라면 그 온전함(全)은 곧 한 영역에 국한된 것(局)이다.”⁴⁴⁾고 논평한다. 결국 이인재는 플라톤 철학에 대하여 “그 학문이 이데아의 형이상학(玄妙)에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⁴⁵⁾고 규정지었다.

플라톤에 대한 논평에서 주목할 것은 전체와 부분에 대한 이해 차이다. 이인재는 플라톤의 견해를 “세계의 人物이 제각기 얻어 가진 본질(性)을 합하면 곧 전체가 된다.”⁴⁶⁾는 견해로 보고, “전체를 부분의 총합으로 보면, 부분은 不利한데 전체는 有利하게 되니, 그런 이치는 없다. 사람마다 자리를 얻은 뒤에야 국가가 안정되니, 만일 한 개인이 제 자리를 얻지 못함이 전체와 무관하다고 하여 내버려 둔다면 이것이 어찌 大公至仁의 도리 이겠는가?”⁴⁷⁾라고 비판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세계가 세계이고, 인간과 만물이 인간과 만물인 것은 모두 自然이 만들어내는 이치이니, 세계가 사람과 만물을 위하여 있고, 사람과 만물이 세계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세계가 있으면 自然히 사람과 만물은 있다.”⁴⁸⁾고 하고, “개체 하나 하나가 전체(箇箇是全體)”⁴⁹⁾ 또는 “부분이 전체요, 전체가 부분(分未嘗不一 一未嘗無分也)”⁵⁰⁾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전체와 부분에 대한 이 견해는 계몽사상기에 유행한 국가주의나 국가유기체설 비판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논리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관련하여 논평의 중심이 된 주제는 神 개념에 관한 것과 ‘중용’의 윤리론이다. 이미 다른 자료를 가지고 지적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유교의 이론에 가깝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신’ 개념을 둘러싸고 많은 분량의 논평을 단 것은 이 문제가 서양고대철학과 유교 사상의 차이를 보이는 근원적인 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希臘古代哲學攷辨』 이인재의 논평에서 두드러진 논리는 성리학의 ‘一而

44) 李寅宰, 앞의 책. p.297

45) 李寅宰, 앞의 책. p.308

46) 李寅宰, 앞의 책. p.320

47) 李寅宰, 앞의 책. p.321

48) 李寅宰, 앞의 책. p.321

49) 李寅宰, 앞의 책. p.321

50) 李寅宰, 앞의 책. p.321

二二而一' '天理之妙'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리로 유신론과 무신론, 일원론과 이원론, 전체와 부분 같은 중요한 철학적 쟁점을 다루어간 것이다. 이 자료는 동서철학의 비교하는 주제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성리학 자체의 논리 문제라는 측면에서도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 측면에서는 寒洲學派 계열의 성리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면우 郭鍾錫의 학맥에 연결되어 있는 李炳憲 같은 학자의 정보를 비롯하여 면우 문하의 정보 교류도 작용하였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서양철학수용사의 자료로서 다루는 데서 더 나아가 철학적 내용을 정밀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3. 曙宇 全秉薰의 『精神哲學通編』

曙宇 全秉薰(1860?-?)은 1860년 이전에 출생한 인물로 추정된다.⁵¹⁾ 『精神哲學通編』은 一名 「精神心理道德政治哲學通編」이란 제목을 가진 책이며, 1920년 중국 북경의 정신철학사에서 발행된 저작이다.⁵²⁾ 전병훈은 道家의인 기반을 가지고 유가, 불가, 도가, 서양철학을 종합하려는 목적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한다.⁵³⁾ 상중하 3편 6권2책으로, 1권이 精神哲學通編, 2권이 심리철학, 3·4권이 도덕철학, 5·6권이 정치철학으로 되어 있다. 전통철학, 종교와 근대적 지식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저술이라고 하겠다.

이 책의 토대가 된 원서들이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 책에 나오는 서양철학자들은 대개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에 소개되어 있다. 채원배의 『哲學大綱』 같이 191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⁵⁴⁾, 당시에 새로 나오는 각종 철학서 및 서양 학술 관련

51) 琴章泰, 『續 儒學近百年』. 여강출판사, 1989. pp.299

52) 위의 책. p.299

53) 전병훈, 『정신철학통편』 「略附諸家評言序」.

54) 위의 책. 8절 15장, 「現存中華心理哲學」

서적을 수집하여 참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책도 이인재의 『希臘古代哲學攷辨』처럼 서양철학자 또는 중국의 변법사상가들의 주장을 요약하여 옮기고, 뒤에 ‘의견(按)’을 붙여 논평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다.

편집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관점이 이인재의 『希臘古代哲學攷辨』과 다른 것은 대체로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공통 부분을 많이 지적한다는 점이다. 또한 ‘대동사상’과 관념적 세계평화론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점은 눈에 띈다. 칸트를 특별히 존중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결과이다.

이 책에 인용된 서양철학자 또는 사상가들을 나오는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칸트(康德), 소크라테스(梭格拉底), 탈레스(庭禮), 플라톤(柏拉圖), 아리스토텔레스(亞里士多德), 몽테스큐(孟德斯鳩), 베이컨(培根), 데카르트(笛卡兒), 스펜서(斯賓塞爾), 존 스튜어트 밀(約翰穆勒), 스피노자(斯賓那莎), 루소(盧梭), 블룬츨리(伯倫智)⁵⁵⁾, 아담 스미스(斯密亞丹) 등이고, 정치가·심리학자·자연과학자 등을 함께 계산하면 40인 이상의 이름과 이론을 이용하고 있다.

이 책은 1910년대 이전에 나온 자료를 이용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앞의 이정직, 이인재의 기록이 정리된 것과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이용 자료의 범위와 영역이 크게 넓어졌다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서양 학술에 관한 자료가 크게 늘어났다는 조건의 변화도 있었지만, 저자의 의도적인 수집 노력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책에는 철학은 물론 정치학, 사회사상, 심리학, 자연과학 등의 분야에서도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의 학설까지 소개하고 있어 상당한 정보 수집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는 매우 편협한 입장에서 자료를 선택하고 이용하였다고 생각한다. 즉 이 책은 철학적으로는 동서철학 절

55) 블룬츨리(Bluntschli, Johann Kaspar. 1808-1881) 정치학 국법학자. 원래 스위스의 온건한 자유주의자로서 정계에 있었으나, 1848년 스위스 종교 동란에 실각, 독일로 넘어가 뮌헨, 하이델베르크 각 대학의 교수. 국가 유기체설의 대표자. 저서 — 일반국가법. 일반 국법 및 정치사. 현대국가론.

충이라는 입장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는 주장에 주목하였고, 정치적 입장으로는 대동사상에 근거한 국제평화론을 반복 주장하고 있다. 저자가 칸트 철학에 주목하는 것은 이 두 입장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는 대표적 서양철학자로서이지만, 칸트 철학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계초의 소개보다 풍부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저자의 철학적 기반이 도가적 신비주의와 현학적 관념론이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고, 당시 중국 강유위의 대동사상이나 평화를 위한 국제 기구의 결성 움직임 등 時事的인 정보들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추리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사상가들의 정치철학이나 학설을 소개하기도 하고, 『천부경』과 같은 자료를 통하여 단군신앙과 연관지은 한국 도가의 신비적 전통을 내세우는 측면도 있다. 동서양 철학과 학술의 절충, 융합이라는 목표는 결과적으로 매우 잡다한 내용의 책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서양철학의 내용에 대한 철학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객관성이나 학술성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오히려 저자의 특별한 입장과 시각에 맞추어 잡다한 정보가 자의적으로 편집된 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0세기 초의 동아시아 사회 변동 과정의 한 측면을 반영한 특수한 자료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鎮庵 李炳憲의 「儒教爲宗教哲學集中論」

李炳憲⁵⁶⁾(1870-1940)의 『儒教復元論』은 孔子敎運動의 일환으로 쓰여

56) 진암 이병현은 경남 함양군 병곡면 송평리에서 출생하였다. 한말 巨儒인 면우 곽종석의 문하에 종유하고, 四未軒 張福樞, 韓溪 李承熙, 勉庵 崔益鉉에게도 問學하였지만, 일제침략기에 시대조류의 급변에 응하여 근대 서양학문에도 관심을 갖고 1914년(45세)이래 5차례 걸쳐 중국에 가서 강유위의 문하에 나가 今文經學과 變法思想을 섭취하였다. 그는 국외에서 李承熙, 朴殷植, 金澤榮, 金九 등과 활동하면서 국내에서 총독부에 유교활동의 보장을 받기 위한 陳情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유교의 종교화운동을 위한 사업에 헌신하였으며, 또한 강유위의 영향에 따른 금문경학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학문적 연마에도 畫力하여 상당량의 저술을 남겼다.(琴章泰, 『續儒學近百年』, 여강출판사, 1989.)

쳤지만 이병현이 중국의 변법사상가 康有爲(1858-1927)에게 배우고, 중국에 자주 여행하면서 서양 문물과 사상에 접하였으므로 그러한 활동이 반영된 저술이라고 하겠다. 이병현의 저술 가운데 서양철학과 관련된 내용이 모여있는 글은 「儒教爲宗教哲學集中論」이다. 물론 이 글에서도 중심 주제는 孔子敎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지만 설명 과정에서 서양철학에 대한 소개가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일본학자들의 서양철학과 종교에 관한 책들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비평과 의견을 붙이고 있는데, 원저의 내용을 고루 정리, 요약하기보다는 저자의 유교운동 논의에 연관된 내용을 뽑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인용된 책들은 『西洋上古哲學史』(中島力造 著), 『希臘三大哲學說』(南海陳鵬 譯), 『萬國宗教志』(內山甚始 著), 『哲學要領』(井上原了 著) 등이고, 종교에 대한 西村茂樹의 논평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⁵⁷⁾ 이 자료들에서 인용한 내용은 주로 서양 고대철학에 대한 것이지만, 칸트나 스펜서와 같은 근대 사상가도 저자의 필요에 따라 인용하고 있으나, “스펜서는 ‘신이란 세계 만물의 정신’이라고 하였다.”⁵⁸⁾와 같이 간단한 문장 수준이다.

이 자료에서 필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내용은 井上原了의 ‘同體循化論’이라고 할 수 있다. ‘동체순화론’은 유물론과 유심론을 통일하는 논리라고 한다.⁵⁹⁾ “유심과 유물은 한 쪽에 치우친 논의에 불과하여 결국 ‘物心同體論’으로 들어가니, 이른바 하나의 근원에서 마친다는 것은 心을 떠나면 物이 없고, 物을 떠나서는 心이 없기 때문이다.”⁶⁰⁾고 하고, “고대철학은 形而上으로 치우쳤고, 근대철학은 形에 많이 치우쳤다.”⁶¹⁾고 하여 유물론과 유심론, 고대철학과 근대철학을 종합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종교와, 철학, 과학의 특징에 대하여, “종교는 형이상의 道에

pp.284-285)

57) 李炳憲, 『李炳憲全集(上)』. 아세아문화사, 1989. pp.209-210

58) 위의 책. p.209

59) 위의 책. p.210

60) 위의 책. pp.209-210

61) 위의 책. pp.209-210

해당하고, 과학은 형이하의 器에 해당하고, 철학은 어떤 경우는 형이상에 어떤 경우는 형이하에 치중하여 유심, 유물 두 파로 나뉜다.”고 하고, 孔子敎를 철학적 가르침의 차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종교’의 측면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⁶²⁾ 공자의 사상을 “敎”라고 해야지 ‘종교’라고 말해서는 안된다.”⁶³⁾ 고 주장하는 견해는 ‘종교’의 미신 행위 때문에 구분하기 위한 뜻에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서방에서 종교를 말하는 자가 미신을 위주로 움직였으나 현재 날로 문명화하여, 뱀이나 짐승을 숭배하는 敎는 전멸한지 오래다. 예수교는 미신이 많고 진리가 적으며, 불교는 반이 미신이고 반은 진리이며, 유교는 진리가 많고 미신이 적다.”⁶⁴⁾ 고 하면서 유교를 내세우고 있다.

이로써 살펴보면, 진암 이병현의 서양철학에 관한 이해는 중국의 변법 운동가들과 일본 사상계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동방문명론’이라 할 백두산 중심의 문명론도 이병현의 「儒敎爲宗教哲學集中論」에서 비교적 장황하게 설명되고 있다. 이병현은 “중고사를 통하여 동방이 나의 조국임을 알았고, 상고사를 통하여 조선, 일본, 만주, 한족이 동족임을 알았으며, 또한 조선, 일본, 만주가 본래 동방의 一大國이었음을 알았다.”⁶⁵⁾ 고 하여 조선, 일본, 만주를 동일한 근원에서 출발한 문명이라는 주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도 동서문명의 충돌, 융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 경향의 반영으로 보인다.

5. 中山 朴章鉉의 「東西哲學說考證」

中山 朴章鉉(1908-1940)⁶⁶⁾의 「東西哲學說考證」은 한 줄에 18글자, 전

62) 위의 책. p.211

63) 위의 책. p.211

64) 위의 책. p.211

65) 위의 책. p.211

66) 中山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中山 朴章鉉 研究』(민족문화사, 1994) 참조.

체 57행으로 정리된 짧막한 기록이다. 여기에 언급된 서양철학자와 사상가는 탈레스(德黎), 아낙시메네스(亞若芝綿尼), 파르메니데스(巴彌醫智), 헤라클레이토스(額拉吉來圖), 아리스토텔레스(亞里士多德), 흉스(霍布士), 스피노자(斯片挪莎), 루소(盧梭), 베이컨(培根), 데카르트(笛卡兒), 칸트(康德), 다아원(達爾文), 몽테스큐(孟德斯鳩), 벤담(邊心), 키드(韻德)⁶⁷⁾, 마르크스(莫氏), 레닌(賴仁)이고,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전통철학(유교)의 어떤 주장에 해당한다는 방식으로 비교, 논평하였다.

자료가 너무 간략하여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세히 살펴 보면, 흉스, 루소, 다아원, 몽테스큐, 벤담, 키드 등을 더 자세히 소개한 것에서 근대 사상에 관심의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소개된 중요 학설과 이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⁶⁸⁾ 루소의 『민약론』을 인용하여 ‘천부인권설’을 소개하고, 다아원의 『種의 起源』(‘種原論’으로 번역)을 인용하여 진화설과 ‘자연선택’ 원리를 소개하면서 ‘物競天擇 優勝劣敗’의 관점에서 “自強을 꾀하지 않으면 이 세계에서 自立할 수 없다”고 하였다.⁶⁹⁾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萬法精理’로 번역)을 인용하여, ‘삼권분립론’과 전제, 입헌, 공화의 세 가지 政體에 대하여 소개하였다.⁷⁰⁾ 벤담의 ‘공리주의’(‘樂利主義’로 번역)를 소개하고, 키드의 『서구문명의 원리』(‘泰西文明原理’로 번역)를 인용하여 경쟁원리를 소개하였다.⁷¹⁾

이 「동서철학설고증」은 짧막한 자료이면서도 중요한 사상가와 학설을 요령있게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록자가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참고

67) 키드(Benjamin Kidd, 1858-) 영국 사회학자. 진보는 불가피한 자연도태와 생존경쟁으로 얻는다고 생각. 이를 반대하는 사회주의는 오래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활동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종교가 문명에 매우 큰 기여를 한다고 믿었다. 저작은 잡지 「제19세기」「평론의 평론」에 실린 논문을 제외하고도 「사회진화」「서방문명의 제원리」등이 있다.

68) 中山 朴章鉉의 「東西哲學說考證」 내용 대부분이 『中山 朴章鉉 研究』(민족문화사, 1994)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였다.

69) 朴章鉉, 『中山全書 (下)』. 保景文化社, p.377

70) 위의 책. p.377

71) 위의 책. pp.377-378

자료도 밝혀져 있지 않다. 요약한 내용을 보면,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에 나오는 용어와 같은 것으로 보아 이 책을 이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그 밖에도 당시에 돌던 서양학술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요약 정리한 기록일 가능성이 높다. 박장현은 32세 때(1939) 일본에 건너가서 당시 일본 학계의 석학인 양명학의 山田準, 井上哲次郎, 주자학의 内田周平, 老莊學의 小柳司氣太 등을 만나 학문적 교유를 넓히고, 二松學舍專門學校에서 수학하였으므로⁷²⁾, 자료 수집의 기회는 많았으리라 예상된다.

이 자료에서 박장현이 전통철학과 대비시켜 설명한 내용은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 예를 들면, 탈레스가 물을 만물의 원질로 보고 아낙시메네스가 4원소설을 말한 것을 소개한 뒤에, “곧 유교의 河圖洛書 洪範과 같은 뜻이다. 그러나 저들은 조잡하고 우리는 정밀하다.”⁷³⁾고 한 것이나, “마르크스의 科學說은 利用厚生과 같은 뜻이고, 레닌의 共產說은 分田制祿과 같은 뜻이다.”⁷⁴⁾와 같은 형식이다. 그러나 이 자료를 통하여 이미 서양의 중요한 학설과 사상들이 폭넓게 소개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계몽운동가들의 서양철학 수용

이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오른 계몽운동가는 장지연, 박은식인데, 이들의 경우 그 저작의 특수성 때문에 서양철학의 수용에 대한 명료한 경로와 과정, 내용을 정리하기 어렵다. 다만 계몽운동가 일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서구 사회사상의 유입은 뚜렷하다. 이미 학계에 알려진 바와 같이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

양계초가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된 것은, 그가 상해에서 「時務報」 주필을 맡은 무렵인 1987년 초라 한다.⁷⁵⁾ 1900년대 한국의 우국, 애국지사들

72) 琴章泰, 앞의 책. p.271

73) 朴章鉉, 『中山全書 (下)』. 保景文化社, p.377

74) 위의 책. p.378

은 국가 위기의 절박감에서 외국의 신학설이나 사상을 읽었고, 그 중에서도 양계초의 논설이나 주장에 공감하고 실천하려 하였다.⁷⁶⁾ 1906년 이후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하여 많은 한국 신문들이 양씨의 저서를 게재하거나 번역하였고, 신문뿐 아니라 학보나 단행본도 쏟아져 나왔다.⁷⁷⁾

계몽사상가들의 관심은 이미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독립과 부강에 초점이 맞추어져 서양철학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내용은 찾기 어렵다. 장지연은 “西洋哲學은 希臘의 탈레스(地利斯)에서 시작하니, 피타고라스(披阿哥利斯)에 이르러 비로소 철학으로 발전하여, 소크라테스(疏格刺底)에 이르러 점차 완성되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亞里斯多)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이룩되었다. 16세기에 영국철학자 베이컨(培根)이 실험철학을 일으키니 이로부터 고대철학이 바뀌어 근세철학을 이루었고, 같은 영국 학자 로크(陸克)와 스펜서(斯賓塞) 등이 모두 이 학파에 속하였다. 또 독일에 칸트(堪德), 피히테(非德), 셀링(塞凌), 헤겔(希傑耳) 등과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德卡兒)가 형이상학으로써 각각 주장을 세워 서로 다투었다.”⁷⁸⁾고 간략히 정리하였는데, 이것은 작은 백과서전 격인 『萬國事物紀原歷史』의 한 항목에서 설명한 것으로 직접 연구하여 정리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장지연이나 박은식의 여러 글에서 주조를 이루는 논조는 당시에 유행 하던 ‘사회진화론’이다. 박은식은 「西友學會 취지서」에서 “지금 세계에 있어서 생존경쟁은 天演의 일이요, 뛰어나면 이기고 용렬하면 패하는 것은 公例”⁷⁹⁾라고 하고, 「物質改良論」 「本校의 測量科」 「大韓精神」 「大韓精神의 血書」 「自强能否의 問答」 등 여러 글에서 ‘생존경쟁’ ‘자연도태’ ‘진화론적 이치’ ‘약육강식’ 등 사회진화론의 통상적인 용어가 보인다.⁸⁰⁾ 장지연도 「團體然後民族可保」라는 논설에서 “오늘날 競爭極烈의 사회에

75) 葉乾坤, 『梁啓超와 舊韓末 文學』. 法典出版社, 1980. pp.117-118

76) 위의 책. p.121

77) 위의 책. p.122

78) 張志淵, 『萬國事物紀原歷史』. 아세아문화사, 1978. p.83

79) 李萬烈 편, 『朴殷植』. 한길사, 1980. p.37

80) 위의 책. pp.15-34

서 어찌 劣敗漸滅의 근심을 피할 수 있겠는가. 무릇 優勝劣敗는 天演界의 公理라”⁸¹⁾고 하고, 황성신문사 설립의 취지를 논하는 글에서 “우승열 패와 적자생존의 현세기를 당해서 암흑의 문을 열고 날로 진보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부패함을 피할 수 없는 바”⁸²⁾라 하여, 이 시기 사회진화론의 논리가 통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계몽사상가들은 사회진화론을 ‘강자의 약자 지배의 논리’로 인식함과 동시에 ‘약자의 강자화를 위한 논리’로 인식하고 활용했다.⁸³⁾ 이 논리는 국권회복의 가망이 희박해지면서 무장투쟁의 논리로 나아가지만, ‘구국’의 문제가 코 앞에 놓인 민족 현실에서 유행된 서구 사상의 특수한 형태라고 본다. 앞에 서술한 이인재의 플라톤 논평에서 ‘전체와 부분’에 대한 입장이나 대동사상과 국제평화론을 지향한 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에 나타나는 입장은 논리적으로 ‘약육강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지만, 애국 계몽기의 사상가들에게 사회진화론은 이론의 문제이기 보다 현실의 문제로 제기된 것이었다.

IV. 맷음말

이 논문에서 다룬 유학자와 계몽운동가의 서양철학사상 수용은 시기와 목적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서양철학 그 자체가 연구대상이 아니고, 자기의 전통 유지, 재정립 또는 시국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구 사상을 원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유학자들은 서양철학사상의 내용을 대개 전통철학의 어떤 주장과 대비시키면서 이해하였고, 계몽운동가들도 시국의 문제에 대한 주장의 보완 자료로 인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포괄하여 東道西器論의

81) 張志淵, 「團體然後民族可保」, 『大韓自強會月報』 제5호.

82) 張志淵, 『韋庵文稿』 卷4, 皇城新聞社記條. 國史編纂委員會, 1956. p.177

83) 趙恒來 編著, 『1900年代의 愛國啓蒙運動研究』. 亞細亞文化社, 1993. p.56

立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도서기론’이 근대적 변화에 자극을 받아 나오게 된 생각의 틀임은 출발점에서부터 ‘道’와 ‘器’의 분리적 사고 경향이라는 데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학자들에게는 유교윤리 대 서양문물(구체적으로 과학기술과 민주제도)로 나타나고 계몽운동가들에서는 민족정신 대 서양의 물질문명으로 나타나지만, 생각의 틀에는 공통 구조가 있다.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양철학 수용의 경향은 단편적인 것에서 폭넓게, 중세 신학의 철학과 고대철학에서 근대철학과 계몽사상으로 관심 영역이 넓어지고 다양해져 갔다.

유학자들과 유학에 배경을 둔 계몽사상가들의 경우는, 정보 습득의 주된 매개가 한문으로 된 자료와 교유 관계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세계 사정을 직접 파악하는 데는 언어상의 제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 정부에서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1886년 育英公院을 세웠고, 1894년에 영어, 불어, 러시아어, 일어, 중국어학교로 분리되었다가 1908년에 다시 합쳐져서 한성외국어학교로 되었는데⁸⁴⁾, 여기에서 배출된 인재들이나 선교사들과 접촉하여 불어, 영어 등 서구 언어를 습득한 인사들은 얻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더 넓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선 천주교회가 1882년부터 1884년까지 사이에 20여명의 신학생을 말레이반도 옆에 있는 폐낭섬의 신학교에 보내 서양어와 학술을 배우게 한 시도가 있었고⁸⁵⁾, 아펜젤러는 1885년 培材學堂과 1886년 梨花學堂을 세워 영어와 서양과학 등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므로⁸⁶⁾ 1900년대에는 서구 언어와 문자를 통하여 직접 전해지는 통로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것이다.

다만, 전통의 계승과 외래 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 왕조의 지배 이념이었던 유교 성리학의 전통을 간직하고 서구 사상을 수용했던 학자들의 대응 방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

84) 柳洪烈, 韓國의 西洋文化受容에 關한 歷史的 考察. 全碩在神父銀慶祝紀念論叢. 효성여자대학 동창회, 1967.

85) 柳洪烈, 위의 논문.

86) 柳洪烈, 위의 논문.

기에서 다룬 자료들 중에서 서양철학수용의 이론적, 학술적 가치로 따진다면 이인재의 『서양고대철학고변』이 가장 의미있는 저술이라고 본다. 이 자료를 통하여 전통철학과 서양철학의 논리 구조의 비교, 전통철학의 기본 입장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서양 고대철학에 국한되어 논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좀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서양 근대철학과 접맥을 시도했던 일본 학계의 자료를 섭취하면서 康有爲의 대동사상과 공자교 운동에 관심을 기울였던 李炳憲도 李寅宰와 함께 면우 郭鍾錫의 門下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 계열의 학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